

한민족 관련 표준 공용화추진 국제학술대회

(2001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 ICCKL 2001)

윤종민 · TTA 관리본부 사업지원부장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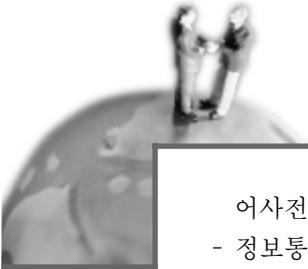
가. 관련 현황

- 정보화, 국제화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특성상 한민족(한국, 북한, 중국 자치주)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못하고 별도의 표준들이 존재하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관련전문가와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1993년 이래 각계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4차례('94~'96)에 걸친 한민족정보처리국제학술대회 및 관련 후속모임들이 개최되었고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연구안 작성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정치적, 시기적 상황 등의 이유로 공동 연구결과가 국내 또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음.
- 관계기관의 꾸준한 노력과 최근의 남북화해 무드에 힘입어 정보기술표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방안이 다시 강구되고 있으며, 사안의 특성상 정부, 학계, 기업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바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연합기구 창립이 모색되고 있음.

나. 회의 개요

- 명칭 : 코리안컴퓨터처리국제학술대회 (ICCKL 2001)
- 일시 : 2001. 2. 22 ~ 2. 24
- 장소 : 중국 연길 개원호텔 대회의실
- 주관 : 중국조선어신식학회, 한국국어정보학회, 조선과학기술총연맹
- 주제 : 정보시스템의 공유와 서로사맞(상호유통) 방안의 모색
- 분과구성(현지에서 최종 조정된 구성현황)
 - 제1분과 : 언어분과(언어분조, ISO 11941 전자법, 부호계)
 - 제2분과 : 정보입출력분과(건반/자판, 서체개발)
 - 제3분과 : 정보기술용어분과(정보기술용



어사전 발간)

- 정보통신분과 : 상기 정식 분과외에 한국측의 요구로 급조된 분과(한국측 산업계, 학계, 표준화기구 등의 의견전달)
- 참석자
 - 한국 : 진용옥 국어정보학회 회장의 40여명
 - 국가기관 : 통일원,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기술표준원
 - 공공기관 : 국립국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총연맹
 - 대학 및 연구소 : 18개 대학, KAIST, ETRI 등
 - 산업계 : 한국통신, 삼성, 한글과컴퓨터 등
 - 표준화 유관기관 : TTA, NCA, 표준협회 등
 - 언론사 및 기타 : 전자신문, 경향신문, MBC, 예술의 전당 등
 - 일본, 미국, 러시아 등 해외 동포
 - 북한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산하 전문가 15명 및 사진기자단 3명
 - 중국 : 중국조선어신학회 산하 전문가 및 대학교수 약 40명

다. 참가 목적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표준화 사전연구를 위하여 북한의 관련 실태조사 및 향후 협력사업에 필요한 교류채널을 모색함.
- 정보통신부의 지원하에 수년간 수행하여온 정보통신 용어표준화 사업설명과 용어사전 및 관련 표준의 홍보, 전파.

2. 주요 회의내용

가. 총회(2/22, 2/24)

- 개회식 : 대회 조직위원회(중국)의 공식 개막 선포에 이어 한국, 조선, 중국측의 축하연설 및 기조연설이 진행됨(15명의 저명인사).
- 주요 논문발표 : 공식의제로 채택된 36개 논문 중 분야별 중요성을 감안하여 14개 논문이 총회에서 발표됨(한국 6, 조선 5, 중국 3).
- 합의문 채택 : 각 전문 분과위원회별 활동결과 및 합의내용을 3국 공동합의문에 수록하고 각국 대표의 연명으로 서명후 공식 발표함(상세내용 부록 참조).
- 폐회식 : 각 국의 100여 명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문을 승인하고, 가칭 “정음공학연구센터”에 대한 설립논의를 끝으로 폐회함.

나. 언어 분과

- 우리글의 명칭문제 : 대회 초창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던 기존 한글의 명칭문제에 대한 토론 끝에 ‘겨레글’, ‘우리글’ 등의 용어대신 훈민정음에서 따온 “정음(JEONGEUM)”으로 통일할 것을 합의하고, 동 표기를 ISO 등의 국제기구에 정식 등록기로 함.
- 자모순서 : ISO에 등록할 자모배열 순서는 '96년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고어와 현대어를 따로 배열기로 하였으며, 이때 발생하는 한글자판의 배열문제는 별도 고려기로 함.
- 전자법 : ISO TS 11941은 내년말까지 국제표준으로 등록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집중토론이 이루어져 금년말까지 공동안을 도출하고, 국제표준 채택을 상정기로 함.

다. 정보입출력 분과

- 건반/자판 : 남측은 자판, 북측은 건반으로 명칭되는 바 '96년의 합의에 따라 ISO 표준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향후 "건반"으로 명칭을 통일기로 함.
- 건반구성 및 배열 : 역시 '96년 합의결과를 존중하여 2벌식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언어분과에서 합의된 고어와 현대어와의 별도배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현방법(3벌식, 옛글건반, 한손건반 등)에 대한 사항은 공동연구와 아울러 지속적인 실험을 병행기로 함.
- 서체개발 : 3국의 서체(글꼴) 개발자료를 상호교환하며, 정음서체 전시회개최 및 정음서체 용어사전 발간에 대한 공동협력을 확인함.

라. 정보기술용어 분과

- 전문용어 표준화의 대상은 ISO 2382(DIS 포함) 및 기타 정보기술 관련분야의 용어로 함.
- 정보기술용어사전 개정 발간계획 수립
 - 남북 양측의 올림말(표제어) 일람표 교환 : 2001. 5. 1
 - 용어선정 평가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의견 수렴 : 2001. 5. 1
 - 남북 양측의 검토를 완료한 최종안 제출 : 2001. 7. 1
 - 책임있는 전문가의 최종 협의 : 2001. 9월 말
 - 사전 발간 업무분장 : 원고집필(북), 편집 발간(중), 재원확보(남)

마. 정보통신 분과(잠정)

- 북측 전문가의 불참으로 정식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타 분과위원회의 일정을 조정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음(급조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3국 모두 높은 관심을 보여 총 26명이 참석).

- 피동적 입장일 수밖에 없는 북측의 입장과 달리 주로 산업계 및 표준 관련기관에 속한 남측참가자의 구성상, 일방적인 협력요청의 자리가 될 수 밖에 없었음(KT, 삼성, NCA, TTA 등).
- 이미 상당기간 접촉을 가져온 언어나 용어 분과의 활동실적과는 비교할 수 없겠으나 정보통신 기술교환 및 표준화에 대한 뜻깊은 출발이라는 점에 양측 모두 공감하였으며,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장담할 수 없으나,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확인과 강력한 교류협력 의사를 북측으로부터 확인하였음.

바. 남북교류센터 설립

- 남북화해 무드가 고조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교류협력의 기초가 되는 정보교환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며, 현재로서는 유일한 창구인 중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방법을 모색하여 왔음.
- 가칭 "정음공학연구센터"를 중국 연변에 설치하여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정보처리 관련 과제의 공동 수행창구로 활용하는 방법에 합의하고, 설립운을 위한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함.

3. 남북통일대비 정보통신표준화 사전연구 관련 조사내역

가. 북한의 표준화체계 및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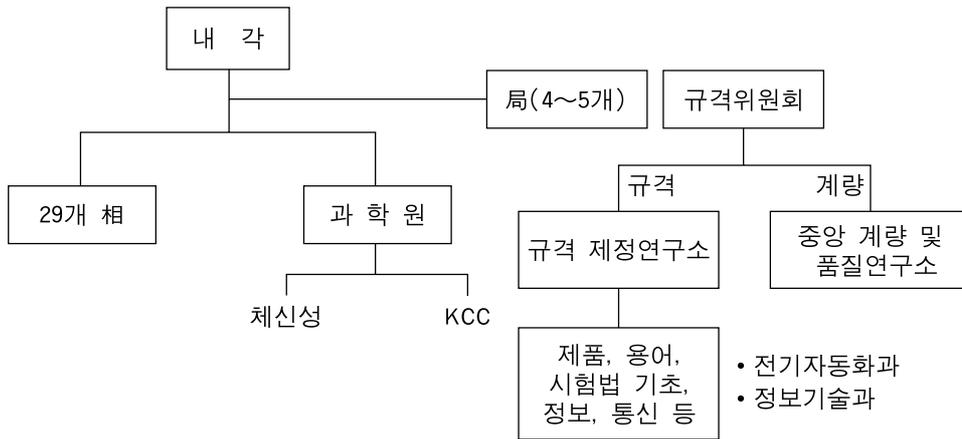
- 표준화 추진체계
 - 내각 산하의 국가기관인 규격위원회(1개 국임)에서 "국규"(규격 및 계량)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체신성"은 우리의 部개념에 해당하는 相과 같



- 은 레벨의 과학원 산하기관임.
- 규격위원회 산하 “규격제정연구소”와 “중앙계량 및 품질연구소”에서 각각 규격과 계량을 담당하며, 규격제정연구소는 다시 6개 정도의 분야로 세분되어 각 분야별 담당과가 지정되어 운영됨(예컨대 통신분야 소속에는 전기통신을 담당하는 “전기자동화과”와 컴퓨터/인터넷을 담당하는 “정보기술과” 등 6~7개 과가 있다고 함).
 - 표준화 관련 조직도(규격위원회 지도원의 구술을 바탕으로 작성)

함 (단 북한의 사회적 특성상 기한여부에 상관없이 상부의 지시로 개정, 폐지가 이루어지기도 함).

- 표준화 추진현황
 - 현재 12,000건의 국규가 채택 사용중이며, 국규외에 임시규격 및 부분규격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북한 국규의 추정 수치는 비공식적으로 '85년 6,624개, '96년 10,200개, '99년말 11,500개 었음.



* 직제상으로는 상이 국보다 우선하며, 또한 공권력이 수반된 행정조직이나, 실제로는 국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고 함.

- 표준화 추진방법
 -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야별로 각계 전문가를 선발(지정)하여 해당부문의 표준을 연구개발함.
 - 연구 개발결과는 규격제정연구소의 각 담당과에서 취합하여 지도원(과에는 과장 및 수 명의 지도원이 있다고 함)들이 직접 표준안을 작성하며, 규격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규로 채택됨.
 - 국규로 채택된 사항은 계획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며, 5년 또는 3년을 주기로 유지보수하는 것이 원칙이라

나. 남북표준화 사전연구시 고려사항

- 북한내 관련 기관별 담당업무
 - 과학원 : 과학기술계획, 발명, 신기술도입, 각 부문 연구소 지도
 - 과학기술총련맹 : 과학기술축전 주관, 품질규격총국/관리국 운영 (품질규격총국을 규격화위원회라고도 하는데 조직도상의 규격위원회와 동일조직인지는 불명확함 : 중복과 부침이 심한 북한의 특이한 조직 형태를 감안하여야 할것임.)
 - 체신성 : 우리의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며

우리와 달리 주로 우정업무를 관장함. 약 120만 선으로 추정되는 통신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등록업무가 KCC(조선컴퓨터센터)에서 수행됨에 따라 행정관리업무에 국한된 것으로 보임.

- 조선컴퓨터센터 : 명칭과는 달리 정보통신과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과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통신망 등록업무를 비롯한 사업성격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함 (예컨대, MIC의 IMT-2000 사업자선정과 같은).
- 평양정보센터 : 통신, 음성, 문자인식기술 등의 전문 연구소

○ 대 북한 연락창구

- 추진주체 : 금번 회의의 북한측 공식 참가기관인 과학기술총련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회, 민간단체의 성격이 실제로는 국가기관임을 고려하여야 함. 한편 대북접촉자들의 한결같은 주문은 실질적인 정부의 관여가 있더라도 외관상 관계부처간의 교류형태가 될 경우 필요정보의 상호교환과 적재적소의 전문가를 통한 내실있는 교류협력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바, 민간에 의한 대북협력 추진은 당분간 필요한 상황임(남북 화해무드 조성과 같은 전반적인 대북정책과 당국자협외와 같은 정치적활동은 별개임).
- 추진경로 : 금번 회의에서 확인된 사항은 중국의 특수한 환경과 역할임. 즉, 남북 당사자에서 빚겨난 제3자적 견지에서 양측을 중재·조정하는 역할은 물론 남측과 온라인으로, 북측과 오프라인으로 연결된 유일한 통로라는 독특한 환경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바 남북한의 직통라인(우편교환, 인터넷)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어쩔수 없이 중국측을 경유 내지는 활용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국어정보학회에서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 중국측의 조선족학자이며 사업가이기도한 현룡운씨나, 설립이 논의

되고 있는 남북교류센터와 유사한 추진형태일 수 밖에 없음.

- 추진방법 : 남북한의 공동표준화와 관련하여 여러형태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얼마나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더욱 아닐것임. 우선 국규와 표준이 가지는 효력의 범위와 강제력의 차이 문제에서부터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계량, 측정, 용어, 기술, 인증 등의 서로 다른 표준 제정형태와 국가정책적인 필요에서 선행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에 있어 표준화가 수반되지 않고 있는 등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남북한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현황을 비교분석하고,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하여 통일에 부담으로 작용치 않는 표준화로,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에 국제표준화에 역행하지 않는 표준화로의 추진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붙임 : 2001년 Korean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
합의문

◎ 국제학술회의 배포자료 목록

- 정보통신용어사전 제4판(CD-ROM 포함) : 12부
- TTA 표준목록 및 표준 CD-ROM : 12부
- 2000년도 정보통신표준화 백서 : 12부
- 2000년도 정보통신용어집 : 26부



붙임 ;

『2001년 Korean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

합 의 문

2000. 2. 24

한국 한국어정보학회

조선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중국 조선어정보학회



2) ISO 11941 전자법

ISO TS 11941은 1992년에 만들어졌으며 2002년 12월말까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면 ISO 규정에 따라 자동폐기된다. 이에 남·북·중 학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① 모음자 표기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② 자음자 표기에 관해서 《ㄴ, ㄹ, ㅇ, ㄷ, ㅅ, ㅆ, ㅈ, ㅊ, ㅎ》 등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③ 자음자 중 《ㄱ, ㅋ, ㆁ, ㄷ, ㅌ, ㅍ, ㅂ, ㅃ, ㅈ, ㅉ》 등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경제성, 체계성, 역사성 등을 존중하고 민족화합의 정신으로 조정하여 2001년 말까지 공동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부호계

- ① 합의된 글자의 이름과 배열 순서에 따라서 ISO 10646-1-2000의 개정 제안을 공동으로 검토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기(건의)한다.
- ② ISO 2022를 따르면서 정음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1바이트 조합형 부호계를 공동으로 만들어 국제 등록부에 올리기 위하여 제출한다.
- ③ 정음을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부호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간다.

2. 정보입출력분과

1) 자판

- ① 실험대상
 - 1996년에 합의한 2벌식 자판 공동안에서 옛글자 4자(△, ◐, ㄷ, ·)를 제외한 자판안을 공동안으로 확인하고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옛글자 4자(△, ◐, ㄷ, ·)를 포함한 자판안도 임상실험을 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도 널리 수집하여 참고로 한다.
- ② 실험방법
 - 실험은 각국에서 사용자 실험과 컴퓨터 모의실험으로 한다.
 - 사용자 실험은 소집단별로 다양한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는 각기 5명으로 한다.
 - 실험결과는 다른 주요 자판안과 비교, 검토한다.
- ③ 차후방향
 - ㄱ. 6개월 안에 실험을 마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각국 대표가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한다.
 - ㄴ. 실험결과의 협의에 따라 공동안이 확정되면 각국 관련기관에 실용화하도록 건의한다.

㉔. 2벌식 외에 3벌식, 옛글자판, 한손자판 등은 서로 협력하여 연구·검토한다.

2) 서체

- ① 남·북·중의 서체개발 자료를 서로 교환한다.
- ② 정음서체 전시회를 개최한다.
- ③ 공동협력으로 정음서체 용어사전을 편찬·발행한다.
- ④ 서체개발에 대한 저작권을 서로 존중하고 보호한다.

상기 사항들을 각국에서 행 부문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2001년 상반기 안으로 그 실현방안을 중국 조선어정보학회에 통보한다.

3. 정보기술용어분과

- ① 제1단계 사업으로 전문용어표준화의 대상은 ISO에서 규정한 ISO 2382(표준화 과정중인 DIS를 포함)와 기타 정보기술 관련분야의 용어로 한다.
- ② 전문용어의 표준화에서 맞춤법 등 표기의 차이는 같은 말로 본다. 용어는 최대한 하나로 하되 각국에서 이미 굳어진 용어는 당분간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 ③ ISO에 규정된 본문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은 한국이 제공하며 원고작성은 조선이 담당한다. 올림말의 순서는 알파벳 순서로 하며 본문 올림말은 영어와 정음, 중국어로 하고 설명문은 영어와 정음으로 하며, 색인의 순서는 1996년도에 합의한 자모순서에 따른다. 색인은 정음,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한다. 표준대응 일본 용어에 대하여서는 일본의 공식기관에서 자료수집을 하며 그 접촉은 한국이 한다.
- ④ 첫번째 초안교환은 2001년 5월 1일까지 하며 pdf의 형식으로 만들어 중국조선어 정보학회에 보내어 교환한다. 이때 올림말의 알람표만 교환한다. 그 후 전문용어는 각국에서 조절한다.
- ⑤ 평가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조선의 안에 대하여 각국 의견을 2001년 5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 ⑥ 최종안은 2001년 7월 1일까지 제출하며 최종회의의 형식과 범위, 장소, 시기는 중국의 조선어 정보학회에서 맡아 처리한다. 최종회의시기는 2001년 9월말까지로 한다.
- ⑦ 이 때 대표책임자는 각 나라 전문단체, 학회 수준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나온다.
- ⑧ 최종표준은 CD-ROM으로 우선 출판하며, ISO와의 허가사항은 한국이 주선한다.
- ⑨ 각국 책임부서로는 한국은 국어정보학회, 조선은 교육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중국은 조선어정보학회로 한다. 세부책임은 각 기관의 책임자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⑩ ISO 2382의 번역과 교정이 끝나면 해당 국가에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 ⑪ 원고의 작성은 조선의 교육성 프로그램교육센터에서 담당하고, 편집, 발행은 중국의 조선어정보학회가 주관하며 편집발행경비는 한국의 국어정보학회에서 책임진다.
- ⑫ 편집위원은 각국에서 2명씩 구성한다.
- ⑬ 자료는 중국 조선어정보학회가 개설하는 자료센터를 통해 교류한다.
- ⑭ 차후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부록 1. 정보통신분과 토의안
2. 정음공학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협의문

2001년 2월 24일

전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한국 국어정보학회 회장

진용욱

조선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박영신

중국 조선어정보학회 이사장

홍병용

<부록 1>

정보통신분과 토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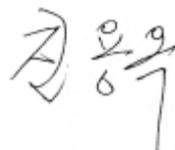
- ① 음성정보기술의 공동연구에 관하여 각국은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 구체적인 항목으로 음성코퍼스 공동개발을 위하여 한국의 국어정보학회에서 2001년 상반기 중에 작성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자료를 중국 조선어정보학회를 통하여 조선에 전달한다. 조선은 한국이 제공한 세부자료를 접수한 후 조속한 시일 이내에 후속 추진을 위한 의견서를 한국에 보내기로 하였다. 각국은 기초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음성인식 등에 관한 공동개발사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② 정음 정보처리 발전을 위한 공동방안으로 말뭉치(COPUS) 공동구축 방안을 토론했으며, 연구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③ 인터넷 도메인을 정음으로 표기하는 문제가 토의되었다.
- ④ 여러 종류의 문서편집 프로그램과 서로 호환이 가능한 방법을 공동연구하기로 하였다.
- ⑤ 정보통신표준에 관한 자료들을 교환하도록 하였다.
- ⑥ 온라인 상에서 중국어 표기법에 관한 공동연구에 관하여 한국과 조선은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구체적인 항목으로 상호간에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정보학회에서 2001년 상반기 중에 한국의 중국어 표기법에 대한 의견을 중국 조선어정보학회에 보내고 조선은 중국어 표기에 관한 자료를 중국 조선어정보학회에 전달하여 상호간에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초환경을 조성한 후에 공동연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 ⑦ 말쓰셈다 능력검정험을 공동제안하기로 하였다.

2001년 2월 24일

전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한국 국어정보학회 회장

진용욱



조선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박영신



중국 조선어정보학회 이사장

홍병용





<부록 2>

정음공학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협 의 문

1. 중국 조선어정보학회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말, 우리 글 정보처리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통하여 정음 정보처리 기술 연구분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2. 정음공학연구센터는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배포에 관한 일과 정보처리에 관련된 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3. 정음공학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은 공동으로 마련한다.
4. 정음공학연구센터는 학술적으로 중국 조선어정보학회에 속하며 행정적으로는 연변 전자정보센터에 속한다.

2001년 2월 24일

전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한국 국어정보학회 회장

진용욱

조선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박영신

중국 조선어정보학회 이사장

홍병용





ebXML 국제표준안 순항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유엔시팩트(UN/CEFACT)와 오아시스(OASIS)가 추진중인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데이터교환(ebXML) 표준안이 늦어도 오는 5월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IT업계에서는 하반기부터 ebXML 표준안을 채택한 전자상거래 솔루션의 개발과 선점경쟁이 뜨거워지고 데이터 호환성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B2B 전자상거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6차 ebXML 국제표준회의에서 UN/CEFACT와 OASIS는 기술체계(테크니컬 아키텍처) 표준안으로 사양 1.04버전을, 메시징서비스(전송·라우팅·패키징) 표준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를 각각 채택했다고 한국 ebXML 전문위원회가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ebXML은 7개 표준대상 항목 중 이미 표준안이 채택된 기술협정(리과이어먼트), 저장과 등록(레지스터리&리파지터리) 항목과 이번 2개 항목을 합쳐 4개 항목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됐다. 기술협정과 저장 및 등록 항목의 표준안은 지난해 채택된 바 있다. UN/CEFACT와 OASIS는 이번 회의에서 5월에 열리는 오스트리아 빈회의에서 아직 표준안이 완성되지 않은 거래당사자간 규약과 비즈니스 프로세서(작업순서), 코어컴포넌트(용어) 등 나머지 3개 항목의 표준안을 채택해 이를 ebXML 1.0버전으로 발표키로 했다. ebXML 표준은 XML기반의 전자상거래 솔루션이 서로 다른 기술사양과 용어, 작업순서 등으로 만들어져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연합 산하기구인 유엔전자거래 및 무역진흥센터(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와 차세대정보표준기구(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가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다.